

43.4.20

지난해 탈영뒤 자수하기도 ... 입대직전 학생금품 뜯어

임 일병 과거행적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총기 난사건을 일으킨 무장 탈영병 임일병(21) 일병은 지난해 8월 입대 후 단기하사관 훈련을 받던 중 지난해 11월 탈영한 전력이 있는 '문이사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평범한 농사꾼의 네 아들 가운데 맏아들로 태어난 임 일병은 지난해 2월 단기하사관 장학생으로 고교를 졸업했다.

고교 졸업 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동네에서 자주 말썽을 부

리던 임 일병은 지난해 5월 고교 재학 때부터 사귀어오던 애인(19)과 동거를 하겠다며 한바탕 소란을 피우다 가족들의 반대로 헤어지고나서부터 탈선이 더욱 심해졌다는 게 가족들의 이야기다.

임 일병은 또 입대 직전인 지난해 7월 친구들과 어울려 서울로 놀러왔다가 용돈이 떨어지자 학생들을 상대로 금품을 뜯다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입대해 하사관 훈련을 받던 임 일병은 훈련과 병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해 11월 초 탈영을 했으나 아버지의 설득

끝에 자수한 뒤 군생활을 계속해 오다 이날 또다시 탈영했다.

임 일병은 특히 입대 전에 자신이 동네에서 피운 소란 때문에 고향에 남은 가족들이 손가락질을 받지 않을까 크게 우려했으며 지난해 2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동네에서 나를 놓고 여전히 쑥덕거리느냐"며 걱정을 했다고 가족들은 전하고 있다.

임 일병의 어머니 박남이(42)씨는 아들의 탈영소식에 "평소 성질이 조급해 무사히 군 복무를 마치기를 그토록 빌었는데..."라며 밑꼬리를 흐렸다. **간석우 기자**